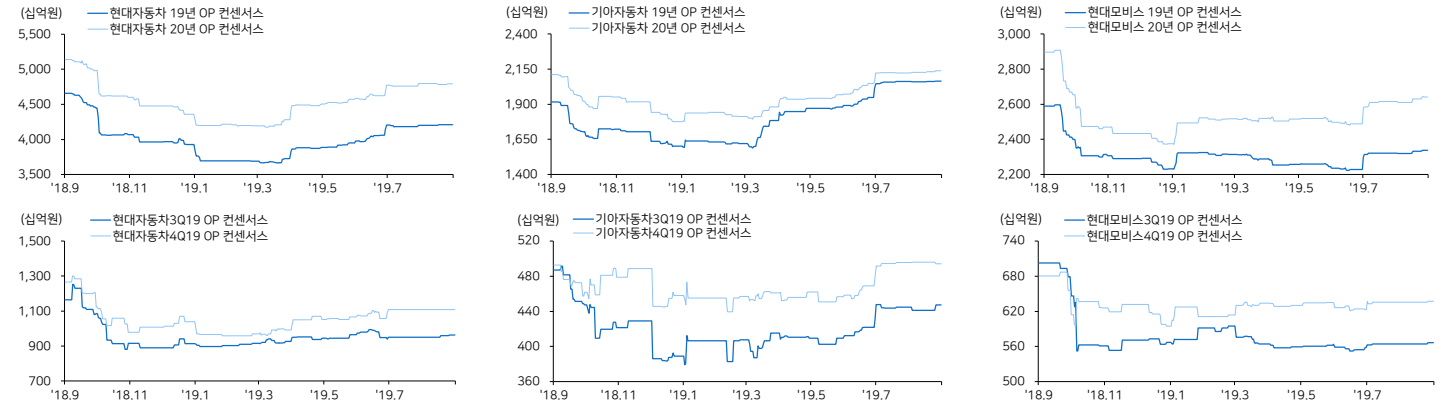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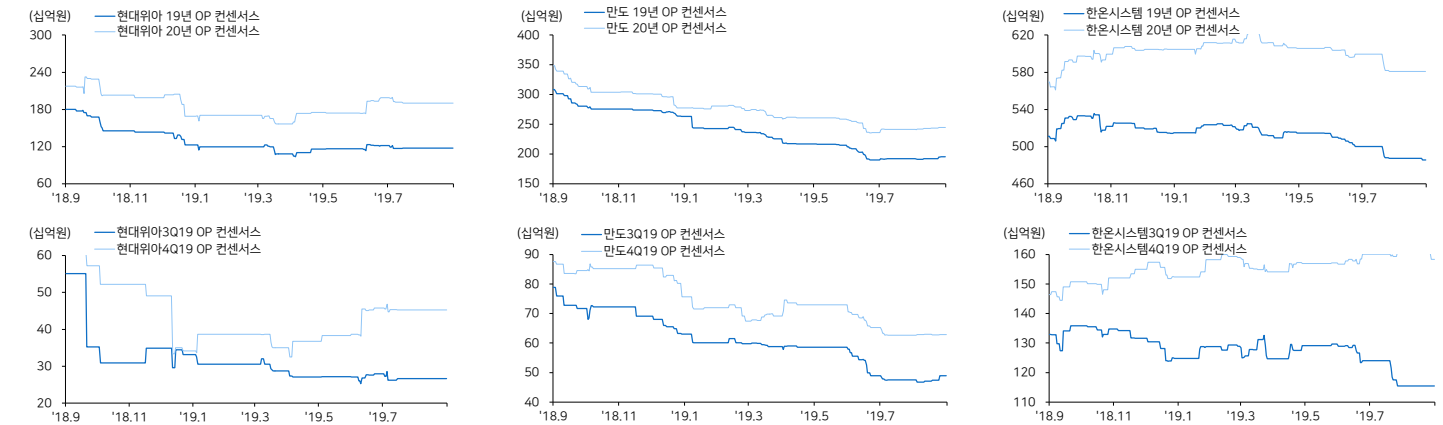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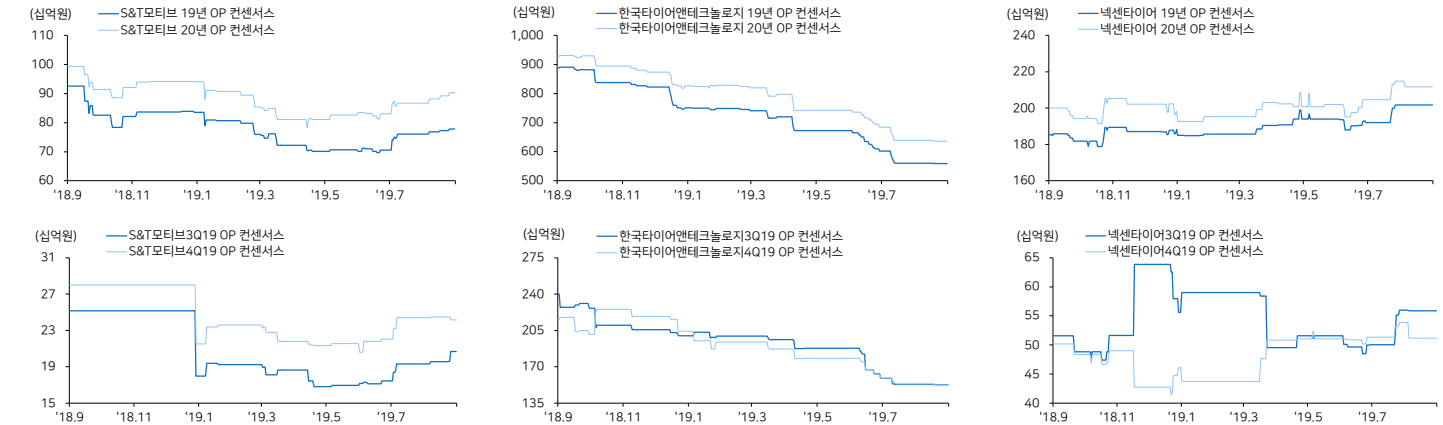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700만 원대 소형 'AX'로 인도 SUV시장 공략 (글로벌이코노믹)

현대기아차의 인도 소형 SUV 시장 공략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음. 현대차 소형 SUV '베뉴'와 기아차 소형 SUV '셀토스'가 인도 자동차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또다른 소형 SUV 'AX'를 인도에 데뷔시킬 예정이기 때문.

<https://bit.ly/2kXTn5U>

현대 · 기아차 내수시장 독주...점유율 72% (매일경제)

한국GM과 르노삼성차 등 국내 리스크로 내수 시장에서 판매가 주춤하는 사이 현대 · 기아차 내수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 현대 · 기아차 모두 올해부터 신차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영향도 있지만, 안정적 노사 관계 영향이 크다는 분석.

<https://bit.ly/2muA0Xr>

현대차, 미국에서 낫산 출신 임원 영입으로 판매와 수익성 개선효과 봐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낫산 출신 임원을 영입한 효과를 특이히 보고 있음. 낫산 출신 호세 무노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과 렌디 파커 판매담당 부사장이 현대차의 판매 개선과 인센티브 감소를 동시에 이뤘다고 있기 때문.

<https://bit.ly/2KZasMD>

현대차, 중 정비 만족도 조사 6년 연속 '1위' (울산제일일보)

현대자동차가 중국 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정비 서비스 만족도 6년 연속 1위에 오른. 북경현대차는 중국질량협회 발표하는 '2019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정비 서비스 만족도 1위 및 종합 만족도 3개 차종 1위를 달성했다 22일 밝혔다.

<https://bit.ly/2IZjzjb>

하이브리드 비중 40%로...현대차, 7세대 아반떼 내년 2월 양산 (전자신문)

현대자동차가 내년 2월 주력 세단 '아반떼' 7세대 모델 양산에 돌입. 애초 계획보다 출시 시점을 3개월 이상 앞당김. 신형 아반떼는 HEV와 고성능 모델 'N 라인'을 추가해 플러그인입을 갖추고 글로벌 준중형 세단 시장 공략을 가속.

<https://bit.ly/2muDmf1>

현대차, 호주에 '베뉴' 출시...코나 이어 'SUV 2대' 강자 '품꾼다 (글로벌이코노믹)

현대자동차가 호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섬. 현대차는 올해 초 호주에 선보여 선풍적 인기를 모은 SUV '코나'에 이어 최근 소형 SUV '베뉴'를 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

<https://bit.ly/2muAKXH>

현대차 코나, 인도에서 3개월간 130대 판매하며 '순항' (글로벌이코노믹)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가 인도시장에서 출시 3개월만에 130대를 판매하는 등 '순항'하고 있음. 코나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은 가격이 전기차에 대한 세금(GST) 인하 정책 등으로 차 가격이 인하된 영향이 컸다는 게 현대차의 자체 분석.

<https://bit.ly/2m8ezpP>

미국 자동차 업체들 유럽서 잇따라 철수 (중앙일보)

유럽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듣기가 부쩍 어려워질 전망이다. GM을 비롯한 회사들이 유럽의 엄격한 환경 규제와 경기침체 등을 견디다 못해 유럽 시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철수하거나 공장을 매각해 사업을 대폭 축소.

<https://bit.ly/2m0H20C>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